



가정통신문

교무실 : 855-1500

찾아오시는 길 : 익산시 중앙로

15길 20



달라서 빛나는
이리초



편견을 접으면
그들의 능력이
보입니다.

다름이 힘이 되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안녕하세요?

학부모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저마다 각기 다른
얼굴과 몸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생김새도 성격도 똑같은 사람들만 존재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4월 20일 제 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그림책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자: 스티브 앤터니

출판: 을파소

발행: 2020.08.26.

"파란 공이 나타났다" 라는 이 그림책에는 초록 도마뱀과 빨간 네모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곳에 갑자기 파란 공이 나타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커다란 공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도마뱀과 네모들은 "넌 우리랑 안 어울려!" 라고 외치며 높이 높이 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도마뱀과 네모 하나가 큰 벽을 넘어 와

"우리 같이 놀래?" 라는 한마디를 건넵니다.

타협, 조화, 공존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파란 공과
함께 놀고 싶어하는 도마뱀과 네모가 더 많았습니다.

서로가 함께 놀면서 마침내!

근거없는 두려움과 편견으로 쌓은 높은 벽은
한순간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은 다양한 친구들을 편견없이
받아들이는 조화로운 마을로 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짠! 모든 모양, 크기, 색깔들과 함께 지내게 된
알록달록 멋진 마을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 체육을 잘하는 친구
무엇이든 빨리하는 친구, 천천히 하는 친구
웃음이 많은 친구, 수줍음이 많은 친구

우리는 모두 다 달라서 아름답고, 달라서
소중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사이좋게 협력하고 배려하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나답게, 너답게, 다름답게'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세상
함께할 때 세상은 다름다워집니다.

2022.4.20.

이 리 초 등 학 교 장